

# 익산시의회, 올해 의정 방향 제시

### 기자 브리핑 열고 갑진년 새해 새 각오 다져

익산시의회 최종의장은 8일 오전 2023년 의정활동 성과와 2024년 의정 방향을 주제로 기자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한동연 부의장, 김진규 의회운영위원장, 강경숙 기획행정위원장,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 김중영 산업건설위원장이 함께해 갑진년(甲辰年) 새해 새 각오를 다졌다.

최종의장은 “그동안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며 익산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책

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라고 하면서 브리핑을 시작했다.

먼저, 2023년 의정 성과로는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의회를 찾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해 피해 발생 시 피해 농가를 찾아 복구활동에 동참하는 등 시민들과 공감하며 시민의 삶 전반에 힘이 되어주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련 부서 및 기관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회,

원광대학교, 전라북도교육청, 시민사회단체와 의견을 교환하며 소통과 협치로 현안문제 해결에 함께 나섰다”고 말했다.

이율러 “체류형 관광 탄소중립도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등 지역현안 중점정책을 도출하고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운영했으며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원 스스로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문화를 만들었다”고 공평했다.

최종의장은 “이처럼 제9대 익산시의회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시민에게 힘이 되기 위해 의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고 소회를 전하며 “2024년에는 시민과의 희망찬 동행을 이어가고 소통과 연대를 강화해 힘차게 도약하는 익산의 발전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먼저 “소상공인과 진솔한 현장대화를 실시하고 불편을 주는 정책과 제도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민생을 회복하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에 의정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최근 익산역 공영주차타워가 문을 열어 익산역 인근 공영주차장 총규모가 1,000대를 돌파했다.

## 익산역 공영주차타워 문 열어

### 대리주차 · 철도 이용객 24시간 무료 주차 · 전기차 충전 등 편의성

최근 익산역 공영주차타워가 문을 열어 익산역 인근 공영주차장 총규모가 1,000대를 돌파했다.

8일 익산시에 따르면 현재 익산역 인근에는 동편으로 △익산역 공영주차타워(187면) △익산역 동부주차장(135면), 서편으로는 △익산역 서부주차장(385면) △역골주차장(172면) △남부임시주차장(123면) △송학주차장(35면) △익산역 회전교차로 노상주차장(58면) 등 총 1095면이 확보돼 있다.

특히 기자 시간이 임박한 이용객들이 쉽고 빠르게 주차할 수 있도록 역골주차장과 송학주차장에서는 대리주차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달 새로 조성된 익산역 공영주차타워의 경우 층별 주차 현황과 빈자리를 안내하는 주차 유도 시스템, 사전 무인 정산기, 승강기를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더했다.

또 최근 증가하는 친환경 자동차 수

요에 맞춰 △익산역 공영주차타워(9면) △역골주차장(2면) △서부주차장(2면) △동부주차장(3면)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이중 익산시가 운영하는 익산역 공영주차타워와 역골주차장, 송학주차장은 철도 승차권을 소지하면 24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외 이용객의 경우 최초 30분 무료, 이후 30분마다 500원, 1일 최대 6,000원을 내면 된다.

익산역(코레일네트웍스)이 자체 운영하는 동부주차장과 서부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1일 최대 1만 원이며, 철도 이용객은 요금의 30% 감면이 적용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역은 호남고속선과 호남·전라·장항선이 교차하는 철도교통의 중심지”라며 “철도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과 편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2024년 부모급여 지급액 대폭 인상

### 24개월 미만 영아 자녀 둔 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2024년부터 만0~1세 영아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이 최대 100만 원까지 인상된다.

부모급여는 만0~1세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을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월 단위 보편수당이며, 만1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으로 현금 및 보육료 비우려 지급액이 크게 오른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0세 반은 보육료 비우려 54만 원, 1세 반은 47만5천 원을 지원받으며, 0세는 부모급여 차액 46만 원을, 1세는 차액 215천 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원을 받는다.

부모급여는 출생신고 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갑준 군산시장장은 “부모급여 지급액 인상으로 영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갑준 기자

## 익산시, 공모사업 선정... 가로환경 개선사업 순항

익산시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공모사업을 통한 국가 예산 확보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행정안전부 및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간판개선사업과 공공 계시시설 확충사업에 선정돼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상황에서 적은 시비 부담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가능해졌다.

시는 총 사업비 9억5천4백만원 중

국·도비 5억1천8백만원(국비 4억1천8백만원, 도비 1억)을 확보해 중앙동 중앙로와 동산동 동천로 거리에 간판 개선사업과 익산시 관내 적정 장소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한다.

사업대상지 거리의 174개 업소 노후 간판을 특색 있는 간판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노후 간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의 개선을 추진해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해당 사업구역을 ‘옥외광고물 등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 이후 입주 업소 건물주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계시시설 확충사업으로 현수막 게시대의 홍보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자게시대를 신규 설치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아동급식 지원 단가 9000원으로 인상

익산시는 결식우려 아동급식 단가를 기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했다.

시는 성장기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단가를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가구 중 가정환경 상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급식(부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는 1,597명의 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들은 가정에 부식을 배달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약 15억

으로 1,600명 아동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급식지원은 저소득 및 결식 우려 가정의 아동들의 결식 예방 및 영양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지역 내 결식 우려 아동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급식 지원 신청대상은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등 가구의 아동이며,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가 아동급식신청서 등을 구비해 ‘복지로’ 누리집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황수연전통식품, 나눔공간 성금 365만원기탁

황수연전통식품영농조합법인(대표 황수연)은 8일 익산시청을 방문하여 다이로움 나눔공간 성금 365만원을 기탁했다.

후원된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고에 처한 위기 가구에게 식복 및 생필품을 구입해 지원될 예정이다.

황수연 대표는 “지역의 기업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어 성금을 지원하게 되었다”라며 “한파로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자녀를 둔 황 대표는 “앞으로도 나눔활동을 통해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산보다도 배움의 삶을 몸소 보여주어 나누는 삶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알려주고 싶다”고 전했다.

허전 부시장은 “모두가 힘든 상황임에도 주변의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고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라며 “전해주시 소중한 성금으로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여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 어린이공영장, 1월 몬스터하우스2 기획 상영

오는 1월 20일(토) 10시 30분과 14시에 군산 어린이공영장에서 어린이만화영화 ‘몬스터하우스2 : 인비저블퍼닉스’를 상영한다고 한다.

어린이만화영화 ‘몬스터하우스2 : 인비저블퍼닉스’는 집을 지키고 돌보는 집요정 ‘피니’과 추리 소설에 폭 빠져 있는 인간 소녀 ‘크리스틴’이 마을에 일어난 미스터리한 사건과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추적해가는 모험기를 그린 판타지 어드벤처 애니메이션 영화이다.

이번 1월 군산 어린이공영장에서 기획 상영하는 ‘몬스터하우스2 : 인비저블퍼닉스’는 무료 관람으로 1월 10일(수) 오전 10시부터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를 통해 지정좌석제로 운영되고 1인당 최대 4매 예약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될 예정이다.

/군산=김갑준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육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